

MUTED REALITIES

Mi Chen
Oojin Kim

静默现实
고요한 현실

陈米
김우진

Mi Chen

Mi Chen was born and raised in Shenzhen, China, and is now based in New York. She is an interdisciplinary artist who mainly works in visual design, ceramics, and experimental film. She graduated from Parsons School of Design in 2021 with her BFA in Communication Design and a minor in Film Production. Through her unique perspective and diverse artistic mediums, she tackles sharp topics with a touch of nostalgia.

Oojin Kim

Born 1998.04.08 in South Korea, received a BFA from the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in 2024.

Investigating the area occupied by the self as a boundary between an inside and outside through the study of emptiness as form.

The increased information accessibility and digital interactions substantially leverage our ability to empathize and react to events and matters. Often, we encounter scenarios where certain realities remain unarticulated. In *Muted Realities*, artists Mi Chen and Oojin Kim delicately explore these subtle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probing the interplay between individual and cultural residues and translation in shaping their realities.

Both Chen and Kim used deliberate choices in employing heavy materials as the surfaces for their art. Oojin highlights the emptiness in artistic expression, challenging the notion that paintings convey emotions. By stripping away emotions and content, he reveals something encrypted and generic. Interestingly, when artists try not to reveal themselves, they inadvertently do so. The choice of a coffee shop as a venue underscores this paradox, as artwork there typically serves as decoration yet must be relatable to the public. This act of creating emptiness ends up revealing more about the artist, much like an empty vessel that still has a shape. The attempt to empty the vessel only emphasizes its form. This concept is paralleled in the use of multiple AI models feeding into each other, further exploring the layers of expression and concealment.

In contrast, Chen's work is earnest and expressive, reflecting an emotional and perceptual reality. The heaviness of ceramic is a direct reflection of her messages. A sense of nostalgia seeps through as the artist attempts to capture her emotions from faded memories. This intentional decision conceptually aligns with the messages of the artwork, evoking a profound sense of fragility despite using weighty materials.

Muted Realities invites viewers to reconsider how realities are perceived from individual viewpoints and reclaim the authentic grasp of reality in a contemporary world where media overload and high technology hegemonically invade the personal lives of many.

MUTED REALITIES

Mi Chen
Oojin Kim

静默现实
고요한 현실

陈米
김우진

陈米

陈米出生于中国深圳，现长期居住于纽约，是一名跨媒介艺术家。主要涉及艺术范围为平面视觉，陶瓷，和影像艺术。本科毕业于纽约帕森斯设计学院平面设计与交互专业和电影制作副专业。获得学院荣誉毕业生。她以独特的视角与思维方式，和多种艺术媒介融合来看待一些较为锋利的主题，并且伴随着浪漫，神秘与怀旧的色彩。

金佑镇

金佑镇1998年4月8日出生于韩国，于2024年获得罗德岛设计学院的美术学士学位。

艺术家通过对于“空”的形式研究，创造无生命的偶像和陈放圣物的空容器，来研究自我作为内外的边界。

信息获取的便捷性和数字互动极大地影响了我们对事物的同理心和反应能力，我们经常会遇到一些现实无法被表述的情况。在《静默现实》中，艺术家陈米和金佑镇探索了这些微妙的体验，讨论了个人和文化遗迹以及语言的转换在塑造他们的现实中的相互作用。

艺术家陈米和金佑镇都选择了在厚重的材料上进行艺术创作。金佑镇强调艺术表达中的空虚，挑战了绘画传达情感的概念。通过剥离情感和內容，他揭示了一些既有加密性又有普遍性的概念。有趣的是，当艺术家在试图隐藏自己时，他们反而不经意间流露出自我。选择咖啡馆作为场地强调了这一悖论，因为那里的艺术品通常用作装饰品存在，却必须与公众产生共鸣。这种创造空虚的行为最终揭示了更多关于艺术家的信息，就像一个空有形状的容器。尝试清空容器的行为只会强调它的形态。这一概念与艺术家使用多个相互反馈的人工智能模型相呼应，进一步探索不同层次的表达和隐藏。

相比之下，陈米的作品是真诚且富有表现力的，反映了感知的现实。陶瓷的沉重直观地传递了她所表达的讯息。当艺术家试图在模糊的记忆中捕捉情感时，一种怀旧感渗透而出。这一决定在概念上与艺术作品的主题一致，尽管使用了沉重的材料，他们的作品仍引发了一种深刻的脆弱感，反映了当代社会的精神特质。

《静默现实》邀请观众重新思考如何从个人视角感知现实，并在一个媒体过载和高科技霸权侵入个人生活的当代世界中重新掌握对现实的真实理解。

Mi Chen

Mi Chen 은 중국 Shenzhen 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뉴욕에 기반을 둔 아티스트입니다. 그녀는 학제간 아티스트로, 주 활동무대는 시각디자인, 세라믹, 실험 영화입니다. 그녀는 파슨스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2021년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으로 미술학사 (BFA)를 취득하였으며, 영화제작을 부전공하였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관점과 다양한 예술적 접근방식으로 그녀는 비판적인 주제들에 '향수'가 깃든 관점으로 다가갑니다.

김우진

출생 1998.04.08 대한민국.

학력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RISD) 미술학사 (BFA).

공(空)의 형상로서 내면과 외면의 사이 자아가 머무르는 구역에 대한 탐구.

향상된 정보 접근성과 디지털 상호작용은 사물에 대한 우리의 공감과 반응 능력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이 표현될 수 없는 상황에 부딪칩니다. “고요한 현실”에서 예술가 첸미(Mi Chen)와 김우진(Oojin Kim)은 이러한 미묘한 체험과 관점을 섬세하게 탐구하여 개인과 문화 유적, 그리고 그들을 형성하는 현실에서 전환의 상호 작용에 대해 논의합니다.

첸미와 김우진은 둘 다 의도적으로 무거운 재료를 사용해 예술 창작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김우진은 예술적 표현의 공허함을 강조하며, 그림이 감정을 전달한다는 개념에 도전합니다. 감정과 내용을 벗겨냄으로써 암호화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개념들을 밝혀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예술가들이 자신을 숨기려 할 때 오히려 무심코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커피숍을 장소로 선택한 것도 이 역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예술품들은 보통 장식품으로 존재하지만, 대중과 관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허함을 창조하는 행동은 모양만 갖춘 빈 그릇처럼 아티스트에 대해 결국 더 많은 정보를 밝혀냈습니다. 그릇을 비우려는 시도는 그 형태만을 강조할 뿐입니다. 이 개념은 여러 AI 모델을 서로 연결하는 것과 일치하며, 다양한 수준의 표현과 은폐를 추가로 탐구합니다.

그에 비해 첸미의 작품은 더 진지하고 표현력이 풍부하며,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현실을 반영합니다. 도자기의 무게는 예술가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합니다. 예술가가 희미한 기억 속에서 감정을 포착하려고 할 때, 일종의 향수가 스며듭니다. 이런 의도적인 결정은 개념적으로 작품의 메시지와 일치하며, 무거운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작품은 깊은 연약감을 불러일으켰고, 현대 사회의 정신적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고요한 현실”은 사람들이 개인의 관점에서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미디어의 과부하와 첨단 기술이 개인의 삶에 침투하는 현대 세계에서 현실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다시 습득하게 합니다.